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2월 27일(주일) 제1382호

“보시기에 좋았더라”

3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말씀 깊이 묵상하고,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작은 실천하기

온누리교회가 아주 특별한 캠페인을 한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이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은 3월 2일(재의 수요일)부터 4월 17일(부활주일)까지 40일 동안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주제로 이어진다. 이 기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한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에는 다음과 같이 참여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대상이다.

첫째, 날마다 7가지 주제(빛, 공기, 물, 땅, 계절, 생명, 인간)와 관련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한다.

둘째, '사용하지 않는 전등 소등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이웃을 존중하는 말과 행동하기',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 '집에서 가까운 시장에서 장보고, 시장바구니 이용하기' 등 일상에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한다.

작은 실천이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 안 쓰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는 것만으로도 전기를 연간 29.6kw/h 절약할 수 있다. 집에서 가까운 시장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포장 및 배송에 사용되는 화석연료와 포장재를 줄일 수 있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참여하는 '인증사진'과 '한 줄 소감'을 카카오톡채널 '창조질서회복' 또는 문자메시지(010-6442-0191)로 보내면 온누리신문에 게재되고,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는 “창조질서(생명과 환경)가 무너지는 것은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권면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3월 1일 오전 10시 '순장영성수련회'

리더십 2,671명 대상 온라인(Zoom)

'2022 순장영성수련회'가 오는 3월 1일(화) 오전 10시 온라인(Zoom)으로 막 오른다. 순장영성수련회는 순장 이상 리더십들을 격려하고, 섬김과 헌신을 독려하는 축제 한마당이다.

이번 순장영성수련회에는 국내 10개 캠퍼스 온누리교회 리더십(장로, 총무, 다락방장,

순장 등) 2,671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빙고 1,123명, 양재 869명, 부천 128명, 수원 154명, 대전 108명, 남양주 51명, 평택 37명, 인천 98명, 강동 56명, 양지 36명, 서산 기도처 11명이다. 교회에서 순장영성수련회 참여 링크를 각 공동체 총무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022 순장영성수련회는 신현승 장로 대표기도, 성가사 듀엣 특선, 홍성호 장로(당회서기) 특강 '순장의 리더십',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소개, 이재훈 목사 메시지, 기도회, 신임 순장 및 다락방장 임명, 선서 '나는 온누리교회 순장입니다'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신임 다락방장 185명, 순장 583명이 각 공동체를 통해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알림

최근 일부 인터넷신문이나 SNS에서 '온누리교회' 이름을 일부 차용 혹은 거짓으로 도용하여 대통령선거와 후보자에 대하여 의견 개진한 글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는 온누리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밝혀드리며, 온누리교회는 교회적 차원에서 정치적 견해 표명을 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동온누리교회 창립 14주년

강동온누리교회가 창립 14주년을 맞아 2월 27일 창립 감사예배를 드린다.

강동 온누리교회는 지난 2008년 2월 24일 캠퍼스 복음화를 비전으로 품고 '건대온누리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다. 2010년 10월 3일 강동구 천호동으로 자리를 이전하면서 '강동온누리교회'로 이름을 바꿨다. 2022년 하남, 미사 등 인구 유입이 많은 동서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공동체 개편을 했다. 기존 2개

의 공동체를 3개로 개편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이주민 등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이준호 목사(강동온누리교회 담임)는 “강동 온누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동서울 복음화를 위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흠뻑내주는 교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홍하영 기자

생명 나누고 기쁨 얻고!

생명 나누고 기쁨 얻는 좋은 방법이 있다. 대한민국 '피(血)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하는 것이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혈하는 캠페인이다. 4월 17일까지 이어진다.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에서 헌혈하면 된다.

생명나눔의 기적 참여 인증사진, 한 줄 소감, 이름, 연락처, 주소를 카카오톡채널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이나 문자메시지(010-4048-3091)로 보내면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 온누리신문에 게재된다(관련 기사 5면).

수원, 부천, 인천온누리교회에서 생명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2월 27일 각 교회 주차장에 헌혈버스가 온다.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성도들은 교회 로비에 마련된 헌혈 대기 장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날 2차 행사가 3월 5-6일 서빙고온누리교회, 3월 20일 양재온누리교회 주차장에서 열린다. 문의: 02-570-7523, 02-3215-3239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신년특집 세상의 소금과 빛 온누리

⑧ 은퇴선교사 이병현 장로와 함께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96세 이병현 장로가 말하는 크리스천과 세상

온누리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을 표어로 내걸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다. 본지에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기관, 사역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 마지막 주인공은 은퇴선교사 이병현 장로(양지온누리교회)다. 이병현 장로는 한평생 선교사로 헌신했다. 동아시아 A국에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고, 지금은 양지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다. 온누리교회의 가장 큰 어른인 중 한 분이다. 이병현 장로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새해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새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성도님들께 온누리신문 지면을 통해 인사 올립니다. 새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대지(大地)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정말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실까?’를 묵상하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보고 계십니다. 다시 믿음으로 새롭게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흠으로 빚고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창조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조역사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될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이겨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올해 온누리교회 표어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선교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지입니다.

제가 협심증이 온 뒤로는 걷는 게 불편해서 밖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부끄럽습니다. 근래 제가 경험한 세상은 이렇습니다. 한번은 종로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길을 걷다 한 청년과 부딪혔는데 그냥 지나가더군요. 그 청년을 불러 세워 부딪혔다고 말했더니 ‘제가 부딪쳤어요?’라며 제 어깨를 톡톡 치고 갔습니다. 또 한번은 서울 남부터미널에 갔습니다. 40대쯤 보이는 한 여인이 남부터미널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박스에 한 푼도 없는 게 눈에 띄어서 만원짜리 한 장을 적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금세 만원을 주머니에 넣고서는 다시 애절하게 구걸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이병현 장로와 김현기 권사가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축복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비웃을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이 우선이고, 정(情)이 없고, 서로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선교적인 눈높이, 하나님의 눈높이로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온누리교회 창립 초기에는 선교를 배우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파푸아뉴기니로 파송받은 한 선교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간증을 마치며 필리핀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는 자녀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떠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더니 아들이 ‘아빠 나 요즘 잠이 안와요’라고 했다는 짧은 간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누리교회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선교에 대한 불이 타올랐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내가 죽도 아니고, 내 이야기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 흘렸을까요? 하나님의 눈높이로 바라봤기 때문에 눈물이 난 것입니다. 선교의 눈높이, 하나님의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거부하고 배척해야 할 것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배척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은 B지역에서 공안이 저를 추방을 시켰다고 작정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 공안에

게 로마서 13장을 읽어주며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선교사다’라고 하니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B지역에 들어갔지만 좀처럼 사역의 기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를 배척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료사역을 통해 간질병 환자를 회복시켜주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을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간질병 환자가 회복된 다음부터는 B지역 주민들이 선교사가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알고 적극적으로 사역을 도와줬습니다. B지역 주민들의 협조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현실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능력껏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시대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있어서 상대방이 감사해하고, 내가 있어서 이웃이 즐거워한다면 소금이요, 빛입니다. 내 행실이 이웃에게 힘을 주고, 그 이웃이 또 다른 이웃에게 기쁨을 준다면 바로 그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웃들과 웃으며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겪은 선교지 일화(逸話)를 소개하

고 싶습니다. 막 선교지를 옮겨서 적응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가장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파트에 웃으면서 인사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친해진 이웃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대접했습니다. 저희 집에 방문한 이웃들이 집 곳곳에 걸려 있는 십자가를 보고 ‘저게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과 복음을 소개하곤 했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좀처럼 인사를 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문화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겠지요. 그래도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하고, 남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각자가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지난해 8월 낙상(落傷)을 당하고 끝인 줄 알았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아직은 제가 할 일이 남았나 봅니다.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곱씹으며 회고록을 정리하고 있고, 선교지 소식도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소식을 들으면 지금도 기운이 납니다. 사역에 대한 아이디어도 떠오릅니다. 젊은 청년들이 동아시아 A국에서 대학을 다닐 기회가 있는데 함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인터뷰하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세상의 소금과 빛’을 주제로 이야기해도 될지, 젊은이들에게 늙은이의 말이 밍게 들릴까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누리교회를 사랑하는 한 성도의 간증이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덕담은 이 한마디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야고보서는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강림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흠어져 시험받고 있었는데 그들을 권면하는 서신입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체험한 이들로써 공감대를 이루는 신앙의 기초 위에서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경건’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religion’이라고 번역했는데 통상적으로 ‘종교’라고 번역합니다. 이때는 종교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신앙’이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예배함’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건(敬虔)이라는 한자를 사용했는데 공경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조심하고 절제한다는 번역이 마땅하고 적절합니다. 27절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에 대해 말씀하기까지 줄곧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연결하면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나타날지를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여러 단어로 표현됩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으셨다”(약 1:18)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낳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할 때 사용하신 은혜의 통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우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쏟아지셨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의의 통로가 되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납니다. 거듭난 새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는 통로가 말씀입니다.

실패의 한복판에서 소망의 약속을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

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벧전 1:23).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면서 그것을 씨로 비유합니다. 썩지 않을 씨, 그 작은 씨앗이 심어지고 자라서 열매 맺듯이, 우리 안에 임한 새 생명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마음에 심긴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에 심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 말씀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외부에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심겨졌다’는 표현은 구약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새 언약이 이루어진 성취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렘 31:33b).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렘 36:27).

이 두 구절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는 기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 선지자들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그발강가에서 이 말씀을 받았고, 예레미야는 멸망의 한복판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 다.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멸망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소망의 약속을 받았습니 다. 역사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 다. 실패와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된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전해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겨서 준행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이었기 때문에 안된 게 아닙니다. 어떤 민족이든 안 된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유대민족이 보여줬을 뿐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노력과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의 과정이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가 아니라 전 인류의 실패를 예를 들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실패 한복판에서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 다. 마음에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순종하는 능력을 성령님이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 구절입니

참된 경건

야고보서 1:19~27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보호할 능력이 없는 이들을 돕고,
자신을 지켜 가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다. 이 구절이 야고보서가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책이라는 오해를 불식시켜주는 핵심 단어입니다. 야고보뿐만 아니라 서신을 읽는 성도들이 이미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심긴 말씀은 옛 언약의 시대에는 절대로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움직이는 말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마음을 사로잡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 체험을 한 사람들만이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고, 자유롭게 하는 ‘말씀’

말씀을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1:21b)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 주십니다. 기록해 주십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 주시고, 심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역사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고, 말씀으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 안에 내재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말씀을 따라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뒤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말씀이 움직여가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한 행위를 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때로 시험과 유혹에 실패하면 구원을 못 받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인간의 행위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선행에 기인하거나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성령님이 역사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의 의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때로 죄악에 빠지고, 실패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방황할 때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나?’라고 의심합니다. 양심에 가책을 주고 회개하게 하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갈등조차 없습니 다. 마음속에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

음에 가책이 오고, 회개하게 하는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또 다르게 표현됩니다. 25절을 보면 말씀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율법’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모세의 옛 언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배려한 용어 선택입니다. 말씀(로고스)은 헬라문화에 익숙하지만, 율법(노모스)은 매우 유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말씀을 마음에 심어 주셨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삶을 제한하고, 속박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한다고 오해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수록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낳으신 진리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씨앗으로 비유하고,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핵심은 씨앗과 땅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 등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세 단계를 보여줍니다. 첫째, 말씀의 씨앗을 소수 사람의 마음 밭에 뿌려주시고 심어주시는 단계입니다. 둘째, 말씀이 심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전파되고 심겨지는 단계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이 심겨지는 단계입니다. 셋째, 심겨진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어 추수하는 단계입니다. 추수의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때요, 심판의 때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과정에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길가는 단단해져서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고, 돌밭은 겉은 흙이지만 속에 돌이 있어서 씨앗이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가시덤불은 이 세상의 유혹과 탐욕에 막혀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14면에 계속)**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1. 창조질서 회복이 답이다! 2. 온누리교회의 노력 3.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3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 말씀 묵상과 작은 실천

온누리교회가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3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한다. 이 기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깊이 묵상하고,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면서 개인과 공동체의 창조질서를 회복해 나간다. 본지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창조질서(생명과 환경)를 왜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시켜야 하는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 세 번째 순서는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무엇인지 소개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탐심으로 파괴되고 있다. 좋은 생명은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하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생명이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할 의무와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방향이자 궁극적인 목표다.

생명과 환경 회복하는 손쉽고 확실한 방법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에서 추천하는 실천 사항이 있다. 생명과 환경을 회복하는 손쉽고 확실한 방법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대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 설거지통을 사용하고, 세탁기를 돌릴 때 세탁물을 가득 채우고, 양치질할 때 컵을 사용하면 엄청난 수 자원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이면지를 사용하고, 화장지, 특히 물티슈 사용량만 줄여도 숲을 지키고 미세 플라스틱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회용품을 줄일 수 없다면 플라스틱 대신 친환경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많은 사람이 플라스틱컵 재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재활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이 5%에 불과하다. 나머지 95%는 500년 이상 썩기를 기다리거나 분해되고 소각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을 잔뜩 배출할 뿐이다.

무엇보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생명을 지키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저출산, 낙태, 입양, 가정 위탁, 미혼부모 등 각종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힘을 보태야 한다. 나를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과 식물을 사랑하기’ 등을 일상에서 실천해야 한다. 그 시작은 말씀 묵상과 기도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기자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약 1달 동안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획 기사를 준비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면서 말이다. 기자에게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다. 잠들기 전에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온수로 몸을 지지는(?) 것이다. 요즘같이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이것만 한 보약이 없다. 몇 분이고 온수로 몸을 지지면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우면 노곤해서 잠도 잘 온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사를 준비하고 실천하면서 이 습관이 나에게 좋은지 몰라도 환경에는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통 샤워기에서 분당 물 12리터를 배출한다. 기자는 매일 밤 약 60리터 정도의 물을 낭비하고 있었다. 피로를 푸는데 물 60리터쯤 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환경을 생각하면 그에게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습관을 과감하게 바꾸기로 했다. 잠들기 전 온수로 몸을 지지는 대신 아내와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기로 약속했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몸에 쌓인 피로 물질들을 해소했더니 잠도 잘 오고, 아침에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부터 시작하면 나, 가족, 우리, 교회, 사회가 변한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실천하면서 기자가 일상에서 경험한 변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습관을 바꾸기가 정말 힘들다. 요즘 같은 한파에는 아침저녁으로 온수에 몸을 맡기고 싶은 욕구가 강렬하게 든다. 다행히 스트레칭이라는 대안이 있어서 온수 샤워는 피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양치질하면서 물을 아끼는 게 쉽지 않다. 양치질에 집중하다 한강이 된 세면대를 보고 아차 싶을 때가 많다.

둘째,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자는 평소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접하면 미국, 중국, 인도 같은 나라에서 변화가 없으면 큰 의미가 없다는 편견이 있었다. 그래서 환경 관련 뉴스를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았다. 덩달아 환경 보호를 주장하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이 억집단처럼 느껴져서 거부감도 있었다. 그런데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실천하면서 알았다. 나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것을 말이다. 나부터 시작하면 내가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우리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기 때문이다.

빛, 공기, 물, 땅, 계절, 생명, 인간 창조세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에서는 7가지 주제를 선정했다. ‘빛’, ‘공기’, ‘물’, ‘땅’, ‘계절’, ‘생명’, ‘인간’이 바로 그것이다. 모두 창조세계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다.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각 요소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창 1:3).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창 1:6).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창 1:9).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창 1:10).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창 1:14).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창 1:24).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도, 어둠을 밝히는 빛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 아름다운 창조세계가 인간의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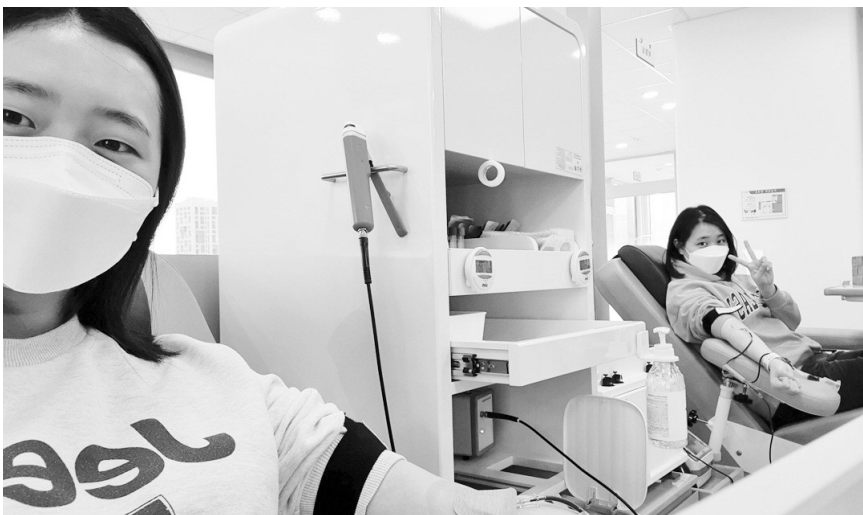
함께하면 더 의미 있는 헌혈!

나온유, 나고은 자매의 특별한 데이트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혈액보유량이 연일 3일분에서 머물고 있다. 수혈이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원활하게 혈액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5일분(2만6,000유닛) 이상이 꼭 필요하다. 2월 25일 기준 우리나라 혈액보유량은 1만7,054유닛으로 3.4일분이다. 혈액보유량이 3일분 미만으로 떨어지면 혈액수급위기 ‘주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하는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이하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다. 온누리교회를 포함해서 16개 교회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은 4월 17일(부활절)까지 이어진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가족과 함께 헌혈을 실천한 나온유, 나고은 자매(부천드림플러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며 헌혈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있다. 현재까지 헌혈의 집, 헌혈카페, 헌혈버스 등지에서 온누리교회 성도 534명이 헌혈했다(2월 25일 기준). 이 뜻깊은 일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성도들이 있다. 나온유(부천드림플러스), 나고은 자매(부천드림플러스)가 그 주인공이다. 헌혈 데이트를 제안한 것은 언니 나온유 자매였다. 올해 스무 살 성인이 된 동생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저는 지난해 생애 첫 헌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 헌혈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더라고요. 동생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함께 헌혈하자고 했습니다. 올해 성인이 된 동생에게 의미 있는 추억을 선물하고 싶기도 했어요(웃음).”

언니와 함께한 헌혈은 동생 나고은 자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됐다. 건강에 대한 감사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처음에 언니가 헌혈을 함께 하자고 했을 때 호기심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헌혈해 보니까 언니가 왜 같이하자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헌혈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셨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한 몸을 주신 이유는 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도우라는 뜻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구제와 봉사 외에도 이웃을 돕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나온유 자매는 헌혈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즐겁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제가 사는 곳이 신도시라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변에 헌혈의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헌혈을 마음먹고 찾아봤더니 집 근처에 헌혈의 집이 생겼더라고요. 하나님이 ‘헌혈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라고 생각했더니 헌혈의 집에 갈 때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같아 정말 행복하거든요.”

나고은 자매는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헌혈전도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헌혈을 한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말리더라고요. 아무래도 헌혈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헌혈하면 좋은 것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헌혈을 적극적

으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에 동참하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잖아요? 이 행복을 친구들과도 꼭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온유 자매는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에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당부하고 부탁했다.

“헌혈의 집 간호사 선생님께서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많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데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 귀한 일에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직도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건강한 청년들이 조금 더 용기 내어 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청년들이 움직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나눔의 기적 한 줄 소감

- 오랜만에 하는 헌혈이라서 긴장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 박현진 성도
-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할 수 있어 주님께 감사드리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백혁 성도
- 뜻깊은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 고성훈 성도
- 생애 첫 헌혈을 온누리교회 피로회복 프로젝트로 참여하게 되어 뿌듯하고 기쁩니다! 작은 용기가 모여 더 큰 행복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유림 성도
- 작년 캠페인 이후 1년의 게으름, 1년의 두려움을 이기고 헌혈에 동참합니다. / 이동현 성도
-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 중심에 감사드리고 소중한 이 피가 필요한 곳에 흘러가게 하소서. / 김봉주 성도
- 헌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오주현 성도
-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박진수 성도
- 사랑의 실천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 신원상 성도
- 헌혈을 통해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 피를 통한 작은 나눔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 이성구 성도
-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던 헌혈, 계속 이어

- 갈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한 것뿐인데, 햄버거 쿠폰으로 배를 채우고, 커피 쿠폰은 케이크로 교환하여 나눔 합니다. 거저 받은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김효수 성도
- 생명을 위한 소중한 한 방울이 되길 소망합니다! / 조남원 성도
- 함께 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한 사람을 위한 소중한 동참, 소중한 가치, 소중한 길로 가는 출발. 헌혈 시작의 계기를 주신 온누리교회 감사합니다. / 송춘석 성도
- 올해도 참여할 수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 유지연 성도
- 지난해는 헌혈을 할 수가 없어서 혈장 성분만 헌혈을 했었는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는지 전혈 헌혈을 했습니다. 소아암 환우와 가족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가 넘쳐나는 한 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 김영진 성도
- 건강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은혜의 십 분의 일도 안 되는 작은 나눔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 임경희 성도
-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 정달순 성도
- 생명나눔의 기적 동참합니다. / 오사랑 성도
-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하였습니다. 저의 작은 나눔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 백두현 성도
- 헌혈은 생명. / 신동훈 성도
- 생명나눔의 기적 함께 합니다. 헌혈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영관 성도

농어촌선교팀이 간다!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곳에 교회가 생겼다!

부안 청림교회 송기원 목사의 기쁨 그리고 감격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곳에 교회가 생겼다. 부안 청림교회(전북 부안군 상서면 내변산로 1047-1) 이야기다. 청림교회는 변산반도국립공원 내에 있다. 내변산 골짜기와 청림저수지, 선계폭포, 격포항 등 주변 자연환경이 그야말로 기가 막힌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건물 신축 공사나 형질변경 등이 잘 안 되는 곳이다. 그런 곳에 청림교회 새로운 교회당과 사택이 세워졌다. 물론 그 과정이 몹시 험난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송기원 목사(청림교회 담임)가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 3년 넘게 중단된 공사로 인해 교회가 없어진 줄 아는 주민들이 있을 정도였다. 그 힘든 과정에서 청림교회가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서빙고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과의 만남이 큰 몫을 했다. 지난 2월 19일(토) 청림교회 송기원 목사를 만났다. 송 목사는 “서빙고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의 은혜에 눈물만 난다”면서 연신 고개를 숙였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서빙고농어촌선교팀원들이 청림교회 2층 바닥 온돌 공사를 하고 있다.

‘깊고 깊은 시골 산골짜기...’

부안 청림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소감이었다. 길가에 가로등이 없어서 칙칙같이 어두웠다. 내변산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칼바람 소리는 흥흥하기까지 했다. 그곳에 서빙고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이영근 장로, 정회평 팀장, 김종문 총무, 박진호 집사, 기세충 집사, 김상진 집사, 이상희 집사, 김흥용 집사(타교회), 주상조 장로)이 왔다. 이들은 지난 2월 18일(금)부터 사흘 동안 청림교회 마무리 공사에

힘을 보탤다. 보일러 설치, 바닥 온돌공사, 벽체 단열 및 전기작업 등 고강도 공사를 했다.

청림교회 예배당 공사는 1층만 완성됐고, 2층은 중단된 상황이었다. 송기원 목사는 건축 자재 창고로 전락해버린 교회당 2층 공사를 어떻게든 완공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졌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였다. 송기원 목사와 황연경 사모가 지난해 병원 신세마저 졌다. 송기원 목사에게 서빙고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과 만남이 하나님

이 주신 큰 선물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말이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날아갈 것처럼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정말 막막하던 그때,
하나님의 큰 선물이 도착했다**

청림교회는 1987년 세워졌다. 변산반도국립공원과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다. 문제는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법 조항 때문에 청림교회 예배당 건축이 계속 가로막혔다.

“조립식 가건물 한 채를 반으로 나눠 예배당과 사택으로 썼습니다. 패널로 덧댄 건물이라 눈, 비가 들어치고 외풍을 막지 못해서 너무 추웠습니다. 쥐, 지네, 뱀 등 각종 해충과 동고동락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자다가 물린 적도 많고요. 한번은 케냐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여기가 아프리카보다 더 오지인 것 같다’며 걱정하셨습니다.”

송기원 목사 부부는 열악한 상황에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도에 열과 성을 쏟았다.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 축구교실, 악기 강습,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교통이 불편해서 미용실 가는 것조차 여의치 않은 어르신들을 찾아가 미용 봉사도 하고,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구급대가 되어드렸다. 송기원 목사 부부의 정성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

“처음에 제가 전도하러 갔을 때에는 어르신들이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목사님 오셨어?’ 하면서 반겨주십니다. 성탄절에 떡을 나눠드리러 가면 식사하고 가라고 하셔서 밥을 몇 끼나 먹을 정도입니다.”

성도가 늘어서 좋았는데 한 가지 눈에 밝히는 게 있었다. 낡은 교회 건물이다.

“교회 건물이 너무 낡아서 붕괴위험이 컸습니다. 추위와 더위에도 취약하고요.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열악했습니다.”

더 큰 제약이 있었다. 교회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어서 형질변경이 어렵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교회 짓는 것도 힘들었다. 관공서를 몇 년 동안 드나든 노력 끝에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자재 가격이 인상됐고,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공사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재정 압박도 심해졌고요. 공사가 더뎠지면서 성도들도 교회 건축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3년이 지났다. 해결방도가 보이지 않았다. 정말 막막하던 그때 청림교회에 하나님의 큰 선물이 도착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이었다.

“지난해 가을 이영근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이런저런 사정을 듣고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교회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며 몇 번이나 전화하시고 걱정해주셨습니다. 건축비도 보태주시고, 이번에는 직접 오셔서 공사를 마무리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송기원 목사는 지금 새로운 꿈에 부풀어 있다. 새로 세워진 교회당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역을 다시 이어갈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어 있다.

“새 교회에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편하게 놀고, 쉬어 갈 수 있고, 어르신들이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음악회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들 것입니다. 동네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방 같은 카페도 만들고 싶습니다. 수련회와 집회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찾아오는 교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저는 청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송기원 목사입니다.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에서 지난 2월 18일(금)부터 3일 동안 청림교회에 오셔서 공사를 해 주셨습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이 청림교회에 오시기 전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농어촌선교팀이 봉사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에서 부안 산골짜기까지 오셔서 봉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농어촌선교팀과 보

낸 지난 3일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청림교회에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청림교회가 있는 곳은 상수원 보호지역입니다. 국립공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이유로 교회 건축이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사택을 합법적으로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와 자재값이 너무 올라 재정적 압박을 받았고, 교회 2층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만 붙들고 하루하루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청림교회에 서빙고온누리교회 농어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촌선교팀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건축 중단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하고, 마음이 정말 힘들었는데 스트레스가 싹 가셨습니다.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의 도움으로 마무리한 청림교회 2층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민들과 성도들이 언제든지 마음껏 쉴 수 있는 카페, 도서관, 쉼터로 꾸밀 것입니다. 자연환경이 좋은 이곳에서 수련회와 캠프도 하고 싶습니다. 전도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새참콘서트’(우리 마을 공감을 악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축구교실 강사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 것 같아 기대가 큼니다. 성경학교도 다시 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서빙고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이 물꼬를 터주고, 마중물 역할을 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사랑으로 도움이 필요한 농어촌 교회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송기원 목사(청림교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역들

1. 한국어선교학교

“한국어는 생명이자 사랑입니다”

3월 5일 ‘제8기 한국어선교학교’ 개강

온누리교회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귀한 사역들이 많다.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사역은 ‘한국어선교학교’다. 성도들에게 한국어 교수법을 알려주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이주민들과 연결해주는 사역이다. 이주민들이 한국어 실력을 쌓으면 쌓을수록 삶의 질이 달라지는 장면을 목도하면 한국어선교학교와 한국어선교사들이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한국어선교학교를 수료하고 한국어선교사로 활동하는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 되는 사역”이라고 간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캄보디아에서 온 페아트라 자매(캄보디아)는 저녁 9시에 퇴근한다. 퇴근하자마자 9시 10분부터 김정숙 권사(거룩한빛광산교회, 69세)와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다. 한국어 배우는 재미에 빠져 수업을 듣다 보면 어느새 저녁 11시가 훌쩍 넘는다. 매번 수업이 길어져서 1시간씩만 하자고 약속해도 페아트라 자매의 열정에 수업시간이 연장되는 일이 다반사다. 페아트라 자매가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 ‘E7 비자’를 취득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주민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공부해서 E7 비자를 취득하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 그래서 대다수 이주민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E7 비자를 취득하고 싶어 한다.

이주민 취업 시장에서 E7 비자는 숙련된 전문직 자격증과 다름없다. 사업체에서도 가능하면 E7 비자를 가진 이주민들을 채용하고 싶어 한다. 한국어선교학교를 수료한 한국어선교사들이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것은 취미생활을 넘어서다. 이주민들의 생존과 이주민들의 고용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주민들이 한국어를 생명이자 사랑이라고 여기는 이유가 있다. 이주민들에게 한국어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데 근무시간이 널뛰기고, 주말에도 특근하는 이주민들이 많아서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생각보다 적다. 돈을 내고서라도 배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그런데 한국어선교학교를 수료한 한국어선교사들이 한국어를 무료로 그것도 원하는 시간에 가르쳐준다. 한국어선교학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역이라고 불려도 부족함이 없는 이유다.

이소윤 집사의 한국어 수업

누구나 이주민들에게 한국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섣불리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가르치는 일이 그만큼 부담되기 때문이다.

이소윤 집사(송파A공동체)는 “터키 현지인과 한국어 수업을 해줄 성도가 필요하다”는 선교사의 기도편지를 읽고 한국어선교학교를 찾았다.

“모국어가 한국어니까 쓰기, 말하기, 읽기는 문제가 없는데 가르쳐야 하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가족들까지 설득해서 함께 도



한국어선교학교(왼쪽)를 수료한 이소윤 집사(송파A공동체)가 터키 이주민과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다(오른쪽).



전했습니다. 강의가 말할 것도 없이 좋았습니다. 다양한 교수법, 자료 활용법 등의 강의를 듣고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소윤 집사는 한국어선교학교에서 배운 한국어 교수법으로 터키 선교사를 도와 현지인들과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다.

“요즘 한국 문화의 위상이 대단하잖아요? 글썄 터키 청년들이 저도 모르는 한국 노래를 알려주고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제 수업에 부족함이 있어도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어 수업을 듣고 터키 청년 5명이 세례를 받고, 터키인 자매가 가족을 전도하는 은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소윤 집사는 수업의 질을 높이고 싶어 한 번 더 한국어선교학교를 찾았다. 두 번째 한국어선교학교를 수료하고 온누리스, 몽골 등지에서 온 자매들과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다.

“한국어선교학교를 수료하면 온누리M센터나 이주민사역지에서 학생들을 연결해줍니다. 이주민들의 상황에 따라 수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대체로 잘 따라옵니다. 수업하면서 기운이 솟는 이주민들도 있습니다. 몽골에서 온 자르갈마 자매와 지난해 8월부터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친구도 데려와서 함께 듣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도 하고, 일상과 신앙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데 정말 좋습니다. 저는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면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선교학교에 오셔서

이주민들을 섬겨주십시오”

정은숙 집사가 한국어선교학교를 찾은 이유

한국어선교학교는 이주민사역을 확장하는데 탁월한 도구다. 정은숙 집사(평택대강교회)는 10여 년 전부터 경기도 평택시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다. 미군사역을 시작으로 아시아 이주민 사역까지 대상을 넓혔는데 늘 아쉬움이 있었다.

“미술, 전도폭발, 영어 예배 등 정말 다양한 사역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주민 80% 이상이 교회를 떠나더군요. 한국어 수업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30분 정도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업을 몇 번 하면 더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주민들은 한국어 수업을 좋아했습니다. 의료사역을 하면 이주민들이 교회를 많이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주민들의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에 정착을 잘한 이주민들은 한국어를 잘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한국어 수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어 교수법을 전문적으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수소문 끝에 한국어선교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정은숙 집사는 한국어 수업이 더욱 확대되어서 더 많은 이주민 사역자들이 생겨나기를 기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오는 이주민이 나날이 늘고 있고, 그에 따라 이주민사역이 더 많이 중요해졌

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주민 사역에 동참하는 손길이 좀처럼 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주민사역처럼 보람차고 재미있는 사역이 없습니다. 한국어선교학교에 오셔서 이주민사역자로, 한국어선교사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한국어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3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제8기 한국어선교학교’가 개강한다.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어선교학교에서는 탁월한 한국어 강사들이 한국어 교수법의 이론과 실재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선교 열정이 넘치는 스태프, 조원들과의 교제는 덤이다.

한국어선교학교를 수료한 100여 명의 한국어선교사들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선교 현장으로 초청하고 있다. 한국어선교사 김정숙 권사가 망설임 시간이 없다면 다음같이 권면했다.

“근로 이주민, 결혼 이민자, 중도입국 청소년, 유학생 등 한국에 온 수많은 이주민이 낮은 환경과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주민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실천입니다. 망설임은 이주민들을 만날 시간과 기회를 축낼 뿐입니다. 당신이 한국어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문의: 010-3290-4506

◆ 기독 OTT ‘풍당’ 오리지널 영화

예수님과 동행(同行)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동행에서 발견한 예수



〈더 워크: 걷기 좋은 날〉
김소윤 감독 | CGNTV 제작 |
2022년 2월 개봉

누구나 멘토(Mentor,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 지도자, 스승, 선생)가 필요하다. 멘토는 인생의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고, 고민

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듣고, 답을 찾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기자에게도 멘토가 있다. 어리숙한 대학 시절을 멋지게 다듬어주신 지도교수님이다. 고민이 생길 때마다 교수님을 찾아갔다. 교수실 문을 두드리면 “들어와”라고 웃으시며 문 열어주시던 교수님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다. 내가 교수님을 가장 좋아했던 이유는 고민 상담이 끝나면 해주시던 기도 때문이었다. 교수님은 길고 긴 이야기가 끝나면 항상 “기도하자”라며 손을 잡고 기도해주셨다. 늘 그 기도에 답이 있었다. 어떤 고민이든 답은 같았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매년 내가 교수님께 받았던 기도이자 답이었다.

‘엘 사다이’, ‘임마누엘’ 등 유명 CCM 작곡가이자 세계적인 CCM 가수 ‘마이클 카드’에게도 멘토가 있었다. 그의 인생 모든 순간을 동행하며 이끌어준 ‘빌 그레이너’ 교수다.

CGNTV가 이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했다. 기독 OTT

‘풍당’ 오리지널 첫 영화 ‘더 워크: 걷기 좋은 날’이다.

영화 ‘더 워크’의 주인공은 하경(마이클 카드 역)과 석호(빌 그레이너 역)다. 영화는 하경이 석호의 교수실을 찾아가며 시작된다. 하경이 석호를 찾아가는 데는 별 다른 이유가 없었다. 그저 석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쭉쭉쭉 교수실에 들어가 잠시 시간을 내달라 말하는 하경의 말에 석호는 웃으며 함께 걷기를 권했다. 그날부터 석호와 하경은 매일 함께 교정을 걸었다. 석호는 항상 하경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필요한 때마다 조언을 건넸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했다. 하경이 여자친구와 크게 다툰 날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것처럼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면 그녀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조언해주었고, 음반 제작을 하면서 불평하고 비통해하는 하경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최고로 해내라”고 격려했다. 석호는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날이 좋은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매순간 하경과 함께 해주었다. 석호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

지도 하경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낸 이유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죽는지 보여주고 싶어서”라고 답하며 믿음으로 살고 죽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줬다. 석호는 하경에게 삶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다.

하경은 석호와의 만남을 통해서 늘 동행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웠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걸어주는 방법을 배웠다.

영화 ‘더 워크’를 보면서 하경이 석호에게 배운 것, 기자가 교수님께 배운 것이 같았음을 깨달았다. 하경과 기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웠다. 삶의 모든 순간에 동행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다.

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고, 위로를 건네시고, 답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성도들에게 영화 ‘더 워크’를 추천한다. 달콤하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 ‘더 워크’는 기독 OTT ‘풍당’ 앱에서 시청할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기독 OTT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배운다

〈신앙생활의 첫걸음〉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가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라고 묻는다면 안내할 준비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기독 OTT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신앙생활의 첫걸음〉를 시청할 것을 추천한다. 기독 OTT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신앙생활의 첫걸음

〉은 초신자에게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안내하는 시리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묵상’, ‘기도’를 주제로 만든 5편의 영상으로 구성됐다. 이규현 목사(은혜의동산교회)가 아주 쉬운 말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알려준다. 기독 OTT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신앙생활의 첫걸음〉에서는 초신자들이 좀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죄’에 대해서 알기 쉽고 명확하게 알려준다.

“하나님은 왜 죄와 선악과를 만드셨나?”는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불순종입니다. 선악과가 죄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선악과는 방안의 온도를 알려주는 온도계처럼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개체입니다.”

이 외에도 〈신앙생활의 첫걸음〉에서는 “아담이 지은 죄와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등 다양한 질문에 답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묵상’, ‘기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일이 곧 예배이자 신앙 실천!

〈크리스천의 슬기로운 직장생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 목회자들의 사역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크리스천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직장을 가진 직장인이려면 일터가 곧 교회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일이 소명이라는 것을 알지만 신앙

과 연결 시키지 못한다. 기독 OTT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크리스천의 슬기로운 직장생활〉시리즈를 시청한다면 일터에서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꿀 수 있다.

기독 OTT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크리스천의 슬기로운 직장생활〉에서는 방선기 목사(직장사역연구소)가 ‘크리스천은 어떤 기준으로 직업과 직장을 선택해야 하나요?’, ‘세속 직장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크리스천은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요?’, ‘크리스천은 주일에 일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리스천은 술을 마시면 안 되나요?’, ‘일터에서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나요?’, ‘크리스천은 윗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일터에서 윤리적인 문제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주제로 강의한다.

방선기 목사는 〈크리스천의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크리스천 직장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직장에서 꼭 종교적으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기보다 일과 삶을 통해서 신앙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강영재 장로의 성경적 관점으로 역사를 새롭게 보는 눈

공룡과 창조의 비밀

성경에 나타난 공룡의 흔적

성경에서 ‘티라노사우루스(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육식공룡)’, ‘벨로키랍토르(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육식공룡)’ 등과 같은 공룡의 이름을 본 적이 없다. 분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공룡을 창조하셨을 텐데 그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공룡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는 질문은 크리스천들이 지구의 나이, 노아의 홍수, 창세기 해설 등 창조과학에 대해 배울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내용이다. 강영재 장로(양천공동체, 전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교수)가 이 궁금증을 해소하는 글을 보내왔다. 성경에 나타난 공룡의 흔적을 정리하면서 창조의 비밀을 풀어간다. 성경 속에 기록된 공룡에 대해 알고 싶은 성도, 자녀와 학생에게 공룡을 성경적 관점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부모와 목회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 편집자 주



강영재 장로
(양천공동체,
전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교수)

욥기의 주제는 ‘고난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으로 많이 알고 있다.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욥기는 창조과학 강의에서 창세기 다음으로 많이 인용되는 책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 창조 때의 상황을 직접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욥기에는 욥이 살았던 당시 환경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잘 모르는 거대 동물들의 이름이 나오고, 지역적으로 연관 짓기 어려운 눈, 우박 등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이 배경을 잘 파악하는 것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체

“날을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욥 3:8).

욥기에 등장하는 ‘리워야단’은 히브리어로 ‘리비아탄’이라고 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 해양 생명체다. 우리가 리워야단을 모르는 이유는 오래전에 멸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그 이름을 번역하기 어려워서 영어 성경(King James Version)에는 아예 넣지 않았고,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현존하는 유사한 동물로 대체해서 번역했다. 우리가 아는 동물 중에서 이미지가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 ‘큰 악어’로 번역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큰 악어’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개역개정에서는 ‘리워야단’으로 음역해 두었다. 멸종한 거대 동물들이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공룡’이라고 부르는 생명체들로 추정된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욥 7:12).

욥기 7장 12절에 나오는 ‘바다의 괴물’도 시편, 이사야 등에는 용, 물 가운데 용, 뱀 등으로 번역되는 ‘탄니인(Tanniyin)’으로 지금은 멸

종한 거대 생명체인 공룡 중 하나로 본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욥 9:13).

이 말씀에 등장하는 ‘라합’도 당시 살았던 거대 해양 생물로 지금 우리가 공룡이라고 부르는 동물 중 하나로 본다. <NIV Study Bible>의 주석을 보면 라합을 ‘sea monster(바다 괴물)’로 설명한다.

어떤 신학자나 주석서에서는 ‘리워야단’, ‘바다의 괴물’, ‘라합’ 등 성경에 등장하는 이 동물들을 ‘신화 속의 동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아마도 ‘리워야단’을 설명하는 욥기의

수 있다. 딱정벌레과에 속하는 ‘폭탄면지벌레’는 체내에 과산화수소와 하이드로퀴논은 주머니가 있어서 효소가 든 주머니로 두 물질을 섞어 넣으면 순간적으로 반응해서 100도 이상의 고열과 독가스를 쫓지에서 뿜어나어 적을 공격한다. 이들은 과거 불을 뿜는 공룡이나 용이 존재했다는 주장의 근거다.

공룡도 분명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

성경에 공룡이라는 단어나 우리가 잘 아는 ‘티라노사우루스(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육식공룡)’, ‘벨로키랍토르(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육



“

공룡은 신화의 동물이 아니다.

성경에도 기록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성경에 기록된 공룡의 흔적을 찾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욥기를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

”

말씀을 보고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생명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솔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욥 41:18-21).

빛, 햇불, 불꽃, 연기, 불길과 같은 현재 생명체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신화 속 동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반딧불이는 루시페린, 루시페라제, ATP를 반응시켜 쫓지에 빛을 달

식공룡)와 같은 공룡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공룡이라는 단어나 다양한 공룡의 이름들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없었던 신조어이기 때문이다. 공룡(Dinosaur)이라는 용어는 1842년 영국의 해부학자 리처드 오웬(Richard Owen)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어 사용했다. 그리스어 ‘Deinos(끔찍한)’와 ‘Saurus(파충류 또는 도마뱀)’라는 단어를 합쳐 사용한 것이다. 이전에는 1822년 영국인 의사 맨텔(Gideon Mantell)이 큰 이빨 화석을 발견해서 ‘이구아나의 이빨’이라는 뜻으로 ‘이구아노돈(Iguanodon)’이라고 불렀었다.

공룡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공룡도 분명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 지

금은 멸종한 거대 동물들이 신화 속 동물이 아닌 욥기와 다른 성경 말씀에 선포되어 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이 거대 생명체들을 직접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제 소 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불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욥 40:15).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욥 40:19a).

“그 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시 104:26).

욥기와 시편에 적힌 말씀을 보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신화 속의 동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창조물이다. 게다가 베헤못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으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성경은 또한 욥이 살았던 때에 공룡이 공존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욥은 공룡이 살았던 빙하시대의 사람으로 보인다. 욥이 살았던 ‘우스’의 위치는 고고학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학자가 지금 요르단의 페트라 지역일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욥기를 보면 “얼음이 녹아 시냇물이 시커멓게 되고 물속에서 눈이 녹아 넘치게 흘러도”(욥 6:16)라는 말이 나온다. 우리가 아는 지금의 페트라는 눈과 얼음을 목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런 단어들이 욥기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를 욥이 살았던 시대가 대륙의 30% 정도가 빙하로 덮였던 빙하시대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의견들이 있다. 욥이 살았던 빙하시대는 지구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화산 폭발에 의한 해수면 온도 상승과 화산재에 의한 태양 에너지 차단에 따른 기온 저하로 폭설이 내리던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욥기에 나오는 ‘얼음 녹은 물이 시커멓게 된다’(욥 6:16)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빙하 속에 화산재가 많이 함유되어 시커멓게 보였을 것이다.

공룡은 신화의 동물이 아니다. 성경에도 기록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성경에 기록된 공룡의 흔적을 찾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욥기를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 창조과학자 이재만 선교사(창조과학선교회)의 유튜브 강의 ‘성경으로 풀리는 빙하시대’ 영상을 함께 보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성경적 관점으로 역사를 새롭게 보는 눈을 뜨게 되기를 축복한다.

라떼는 말이야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저는 지방대 출신이고, 취업을 늦게 해서
 번 돈도 많지 않습니다. 나이는 벌써 30대 후
 반입니다. 교회 자매님들이 저한테 “오빠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말이 마냥 칭찬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연애(결혼) 상대는 아니라는
 말로 들립니다. 교회 자매님들을 보면 외모나
 스펙 등이 저보다 너무 훌륭해서 다가가는 것
 조차 주저됩니다. 지극히 평범한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형제님의 고민과 마음이 심분 이해된다. 나
 또한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 ‘결혼할 수 있을
 까?’ 혹은 ‘미래도 불투명한데 내 반쪽이 있
 기는 한 걸까?’ 생각했다. 다행히 교회 청년부
 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주신 아내를 만나 믿
 음의 서약을 굳게 하고 살고 있다. 그 시간을
 돌아보면 행복하기도 했지만 예상치 못한 수
 많은 삶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느라 25년을 바
 랍처럼 보냈다. 얼마 전 어느 목사님에게 “결
 혼은 처음 석 달 행복, 이후 3년 싸움, 나머지
 30년 인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결혼반지
 (ring)도 결혼 전에는 ‘engagement(연대, 약

속)-ring’, 결혼식에서는 ‘wedding-ring’, 결
 혼 후에는 ‘suffer(고통)-ring’ 이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결혼이 늘 좋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데 공감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배우자는
 어땠을까? 모든 것이 형제님 생각과 같이 잘
 준비되어 있었을까?

첫 번째 사례다. 순결하고 믿음이 좋았던 A
 청년은 결혼 전에 사랑했던 여인이 영문도 모

농사일을 위해 고용한 가난한 외국인 과부와
 결혼해서 그 여인의 재정적 부족함을 해결해
 주었다. 여기서 어떤 결혼이 가장 이상적이라
 고 생각하는가? 세상적인 결혼조건으로 보면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 A청년은 예
 수님의 육적 아버지 요셉, B청년은 아굽, C청
 년은 보아스다. 요셉은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의롭게 행동했고, 아굽도 베엘에서
 본 환상을 믿고 14년 중노동의 고통을 이겨냈

시 허락하신 것 같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의
 배우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조건은 하나
 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다. 절대 믿음은 하나
 님을 깊이 경험해야 얻어진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체험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것
 이 우리에게 자신감과 영적 능력을 줘서 위
 축되게 하거나 남과 비교하지 않게 만든다.

형제님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셨
 다. 우선 준비할 것은 외적인 재산, 학력, 직
 장보다 성경 속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
 님을 깊이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의 경험상 그럴 때
 자매들이 부족하더라도 형제님 속에 내재
 하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형제님을 통해 드러날 때 자매가 다
 가오게 될 것이다. 형제님의 진실을 본 자매
 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찾게 됨으로써 하나
 님의 가정이 비로소 탄생하게 될 것이다.



독고석 멘토
(CHPLUS청년부)

“믿음의 사람들의 배우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조건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다.”

르는 임신을 했지만 사랑했기에 조용히 파혼
 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천사의 이야
 기를 듣고 믿음으로 결혼했다. 두 번째 사례
 는 돈과 일자리가 없던 B청년이다. 좋아하는 여
 자와의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7년 동안 일해
 서 돈을 모았는데 사기를 당해서 다시 7년을
 일했다. 총 14년을 죽도록 일하고서야 비로소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사례는
 많은 자산가이자 농장주였던 C형제다. 그는

고, 보아스는 롯의 희생적 사랑과 헌신을 보고
 아내로 받아들여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게 되
 었다.

성경 속 결혼은 우리가 추구하는 막연한 행
 복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삶에서 오는
 여러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하늘의 축복에 관
 해 이야기한다. 이들의 결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고난의 과정을 받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경계선이 필요한 원가족(原家族)

“어느 가정이나 어려움을 주는 가족 구성원
 이 한 명쯤 있다”는 말을 하곤 한다. 가족들에
 게 재정적인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전가하
 고, 관계에서 유난히 갈등을 유발하는 구
 성원도 존재할 수 있다. 가족과 전혀 상의 없
 이 혼자서 무리하고 무책임하게 재정적 문제
 를 만들어 놓고 해결하지 못해서 가족들에게
 짐을 지우는 구성원이 있다면 그 고통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그 고통은 원가족(原家族, 개
 인이 태어나서 자라 온 가정 혹은 입양되어
 자라 온 가족)를 넘어 배우자와 그 가족들에
 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문제가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을 때 주변에
 서 “선을 긋고 혼자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
 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가족
 관계의 역동은 이성적으로만 이뤄지지 않을
 때가 많다. 가족 구성원 한 명이 실수로 큰 빚
 을 지게 됐다면 못 본 척 넘길 수 없을 때가 많
 은 것이 가족 관계다. 종종 가족 구성원이 함
 께 모여 어떻게든 그 빚을 해결해 주면서 어
 려움을 공동으로 감당하는 훈훈한 과정을 만
 들어 내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의 훈
 훈한 결말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상황이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는 것을 종종 본다. 또다
 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문제를 만
 들고, 가족들에게 떠넘기는 패턴을 만드는 구
 성원이 있기도 한 것이 현실적인 가족의 모습
 이다.

가족 안에서는 이성보다 감정과 본능이 먼
 저 작동한다. 이성적으로는 혼자서 해결하도
 록 놔두는 것이 옳은 판단이지만, 가족의 문제
 가 되었을 때는 이성적인 판단을 고집하기 어
 려운 것도 사실이다.

본능적인 마음이 강하게 움직이더라도 가족
 간 ‘이성적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가족의 건
 강성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경계선이
 있을 때 인간은 고유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삶
 을 책임지는 모습으로 온전히 성숙할 수 있다.
 항상 의존하는 모습으로 가족에게 짐을 지우
 는 삶의 행태를 취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에게
 힘겨움이 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짐은 스스로
 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가족 구성원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행동이다. 계
 속 의존성을 받아주고, 융합된 관계는 더 많은
 심리정서적 문제들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크
 다. 스스로 짐을 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들
 지만 잠시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 더 나은 행
 동일 수 있다.

중독 문제가 있는 가정에는 동반 의존된 사
 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알코올에 중독된 가정에는 알코올 중독
 자에게 계속 알코올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는 동반 의존된 구성원이 있는 경우를 본
 다. 이들은 경계선이 흐릿한 경우가 많다. 자
 신의 짐을 끊임없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전가하는 가족이라면 정서적으로 힘들더라도

경계선을 그어주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
 다.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가족 구성원의 역할
 이다. 물론 가족 구성원들이 무리하지 않은 선
 에서 도움을 주기로 했다면 이 또한 마땅히
 존중받을 결정임이 틀림없다. 중요한 것은 더
 는 부정적인 습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하
 는 것이다.

가족의 심리정서적, 혹은 물리적인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관
 계 스트레스’다. 가족은 행복하고 가까워야
 하는 사이지만 너무 밀접한 위치에 있다 보면
 관계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된다. 늘 자신의
 심리적 마당에 누군가 오가면서 심리적인 안
 정을 취할 틈을 주지 않게 된다. 부부도 자신
 의 공간과 자리가 필요한데, 가족이라면 더욱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
 다. 공간과 시간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거
 리도 필요하다. 그것을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이러한 거리를 무시하
 고 무작정 들어와서 흐트러놓고 지적하고 비
 난하고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한다면 이보다
 큰 스트레스도 없을 것이다. 가까운 가족일수
 록 가족의 ‘심리적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것
 을 인정해야 한다. 경계선을 통해서 독립적인
 한 개인, 스스로 잘 기능하는 한 개인으로 성
 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간의 심리정서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원가족 중에 유독 자

신을 힘들게 하고 가족을 힘들게 하는 구성원
 이 있다면 분명하게 심리적 경계선을 세워야
 한다. 자신의 짐을 떠넘기는 것이 습관이 된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원가족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의 결혼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
 게 된다. 짐을 스스로 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형제들이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다. 자신과 배
 우자가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받으면서까지
 원가족을 무리하게 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과도하게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원가족 구
 성원의 빚을 갚아주려고 시도하는 이가 있다
 면 의존성과 독립성, 경계선에 관해 고민해보
 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짐을
 감당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
 신의 짐은 스스로 질 수 있도록 가족 간 경계
 선을 세우는 것이 심리정서적인 측면에서 유
 익하다(고후 12:7~10).

나눔: 원가족에
 게 요구받는 무리
 한 부탁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
 는지 나눠 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부
 분이 있다면 부부
 가 진솔하게 나누
 고 기도하는 시간
 을 가져보세요.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온누리복지재단 장학사업 ‘온소미(溫笑美)’ 출범!

2월 22일 온소미 첫 ‘명예파트너패’ 증정 및 장학금 수여식

온누리복지재단 장학사업 ‘온소미’에서 지난 2월 22일(수) 후원자에 대한 ‘명예파트너(Honorary Partner)’패 증정 및 장학금 수여식을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날 김소망 대표(가명, 사업가, 독지가)가 제1호 패를 받고, 최민석 형제(26세, 대학교 4학년)가 장학금을 받았다. 최민석 형제는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온누리복지재단 수탁기관)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으나 법정지원기간 종료로 도움이 절실했는데 온소미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학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거액의 장학금을 쾌척한 김소망 대표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최민석 형제는 좋은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했고, 최민석 형제는 “제가 도움받은 것을 기억하고 자립하면 온누리복지재단 장학사업에 환원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송영범 장로(온누리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최민석 형제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이웃과 주변을 돌보



온누리복지재단 장학사업 ‘온소미’의 첫 명예파트너패를 증정하고 있다.

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며 축복했다.

온소미(溫笑美)는 ‘따뜻한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다. 온누리복지재단의 장학사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장학금은 온누리복지재단 장학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현재 8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온누리복지재단 장학사업 ‘온소미(溫笑美)’에서 성도들의 사랑과 성원을 기다리고 있다. 일정 금액(일시 혹은 누적) 이상 후원하는 기부자에게는 이재훈 목사(이사장) 명의로 온소미 ‘명예파트너패’를 증정한다. 후원금 사용내역은 세액 공제 혜택도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3월 2~13일 홍대입구역 3번 출구 경의선숲길

국제 낙태 반대 기도운동단체 ‘40 days for life’에서 주관하는 낙태 반대 기도운동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또다시 시작된다.

온누리교회는 3월 2일(수)부터 13일(주일)까지 참가한다. 2호선 홍대입구역 3번 출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한 생명의 소중함과 낙태 반대를 호소

하는 피켓을 들고 침묵기도 시위하면 된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기도 봉사자로 섬기기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타 교회 성도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사이트(www.40daysforlife.com, 02-727-2354)에서 신청해야 한다.

영종도온누리교회 ‘상량감사예배’

2022년 11월 준공 예정

영종도온누리교회(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709-3) 상량감사예배를 지난 2월 24일(목) 드렸다. 상량(上梁)은 집을 지을 때 기둥에 보를 얹고 그 위에 마룻대를 올리는 일을 말한다. 건물의 뼈대가 완성됨을 뜻한다. 영종도온누리교회는 2022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영종도온누리교회 상량감사예배는 건축위원회 보고, 홍성호 장로 대표기도,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원로) 말씀, 전영한 회장(하남(주), 기증자) 감사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영한 회장은 “저의 평생소원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룰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33기 전도폭발훈련학교 3월 7일 개강

33기 전도폭발훈련학교가 개강한다. 3월 7일(월)부터 6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이어진다. 전도폭발학교 주간반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저녁반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전도하고 싶

은 성도, 전도 기술 등을 배우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아이스쿨에서 등록하면 된다. 회비는 4만 원.

문의: 주간반 010-3801-1215, 저녁반 010-8625-9000

“영적 큰 파도를 일으켜라!”

파워웨이브 패션집회

차세대 파워웨이브 패션집회가 지난 2월 23~25일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We are PowerWave’를 주제로 막 올랐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영적 큰 파도를 일으키기 원하는 청소년 600여 명(23일 527명, 24일 758명, 25일 572명)이 참석했다.

파워웨이브 패션 집회는 23일 ‘말씀의 능력’, 24일 ‘성령의 능력’, 25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삶’을 주제로 진행됐다.

2022년 하반기 결혼예배 예약

2022년 하반기(8월~12월)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을 한다. 3월 22일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지하 2층)에서 추천한다.

결혼예배 예약은 예비 신랑, 신부 또는 양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라면 할 수 있다. 단, 예비 신랑, 신부는 반드시 등록교인이여야 한다(타 교회 가능). 예약금 50만 원과 예비 신랑, 신부의 교인확인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결혼예배 주례는 온누리교회 목사만 가능하고, 결혼예배는 양재온누리교회에서만 드린다.

문의: 02-570-7505

2022 상반기 공동체 개강예배

서빙고			
날짜	공동체	장소	시간
3월 4일(금)	OCC	중	20:00
3월 4일(금)	관악금천	중	20:00
3월 4일(금)	노원	중	20:00
3월 4일(금)	성동광진	중	20:00
3월 4일(금)	성북	중	20:00
3월 4일(금)	양천	중	20:00
3월 5일(토)	광명	중	19:00
3월 5일(토)	북누리	중	17:00
3월 5일(토)	신용산	중	19:00
3월 5일(토)	일산	중	17:00
3월 5일(토)	한강	토요주일예배	13:00
3월 6일(주일)	고양은평	중	19:00
3월 6일(주일)	동작	웹엑스	19:30
3월 7일(월)	영등포구로	중	20:00
3월 8일(화)	서빙고	중	20:00
3월 10일(목)	특별한 초대	중	20:00
3월 11일(금)	가정사역	중	20:00
3월 11일(금)	강서	중	20:00
3월 11일(금)	강촌	중	20:00
3월 11일(금)	동대문중앙	중	20:00
3월 11일(금)	마포	웹엑스	20:00
3월 11일(금)	서대문	중	20:00
3월 11일(금)	여의도	중	20:00
3월 11일(금)	용산	중	20:00
3월 11일(금)	이수	중	20:00
3월 11일(금)	이촌	중	20:00
3월 11일(금)	중충로	중	20:30
3월 11일(금)	천양사역	중	20:00
3월 12일(토)	김포	중	19:30

양재			
3월 2일(수)	양재	중	20:00
3월 3일(목)	강남E	중	20:00
3월 4일(금)	강남C	중	20:00
3월 4일(금)	경기A	중	20:00
3월 4일(금)	도곡	중	20:00
3월 4일(금)	분당B	중	20:00
3월 4일(금)	포인트5	중	20:00
3월 6일(주일)	하모니	중	20:00
3월 10일(목)	강남A	중	20:00
3월 10일(목)	서초B	중	20:00
3월 10일(목)	서초C	중	20:00
3월 11일(금)	강남B	중	20:00
3월 11일(금)	과천의왕	중	20:00
3월 11일(금)	분당A	중	20:00
3월 11일(금)	서초A	중	20:00
3월 11일(금)	송파A	중, 유튜브	20:00
3월 11일(금)	송파B	중	20:00
3월 11일(금)	강남D	중	20:00
3월 12일(토)	서초D	중	20:00
3월 12일(토)	푸른누리	중	20:00
방학 없음	브릿지33+	-	-

캠퍼스			
3월 4일(금)	부천 소망	중	20:00
3월 6일(주일)	부천 희락	중	16:00
3월 6일(주일)	부천 사랑	중	17:00
3월 6일(주일)	부천 화평	중	19:00
3월 11일(금)	부천 믿음	중	20:00
3월 8일(화)	수원 서누리	본당	20:00
3월 10일(목)	수원 북누리	본당	20:00
3월 11일(금)	수원 동누리	본당	20:00
3월 12일(토)	수원 남누리	본당	13:00
3월 4일(금)	대전 동누리	본당	19:30
3월 4일(금)	대전 남누리	비전홀	19:30
3월 4일(금)	대전 서누리	중	20:00
3월 11일(금)	대전 북누리	세종교육관	20:00
3월 4일(금)	남양주 공동체별로	온라인	공동체별로
3월 11일(금)	평택 공동체 연합	중	20:00
3월 4일(금)	인천 남누리	중	20:00
3월 6일(주일)	인천 북누리	중	20:00
3월 11일(금)	인천 서누리	중	20:00
3월 4일(금)	인천 동누리	중	20:00
3월 11일(금)	강동 공동체 연합	중	20:00
3월 4일(금)	양지 동누리	중	20:00
3월 4일(금)	양지 서누리	중	20:00

람풍족 취약계층 노인 60명 건강검진

NGO 더멋진세상이 인도네시아 지역 병원과 함께 지난 2월 10일(목) 람풍족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했다. 이번 건강검진은 바투바다 마을 건강증진센터에서 NGO 더멋진세상과 마르디와

류요 병원 의료팀이 협력해서 진행했다. 이날 람풍족 취약계층 노인 60여 명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았다. NGO 더멋진세상은 올해 4차례 건강검진을 할 계획이다.

2월 세레자

■서빙고 입교

정형진 010120
홍계원 760412
유아
김라엘 200112
김남수 이하나
김예준 211214
김태주 조해진
조이안 200510
조항준 임나래
최유진 190901
최형규 김보경

최찬영 200716
최현성 박부경

■양재

정연아 660510
정지인 790211
유아
김리윤 210726
김형범 양지아
김리하 200422
김형범 양지아
배시연 200131
배중권 목지선

이서아 200507
이영진 박지은
이서윤 200507
이영진 박지은
이정인 200424
이충현 김은혜
이하담 200929
이상현 임은선
정이한 210805
정지명 유선주
조예은 200123
조민석 임희선
차이도 200415

차중협 김예진

■대학청년부 SNS

이민주 9009253
입교
김은지 960515
유아
장하은 210210
장대현 하지에

■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방의현 자매(허브대학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선물

1년 동안 신앙과 진로 문제로 기댈 수 있는 멘토나 어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이뤄주셨다. 일대일제자양육은 내 인생의 반환점이 되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다.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감사한 점이 많다. 첫째,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삶을 긍정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삶 자체를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 일상에 대한 앎은 감사만 있었다. 그러나 양육자님의 중보기도와 일대일제자양육 교재 내용과 경건 훈련, 암송을 통해 삶 자체를 감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 진심으로 기뻐다. 아직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둘째, 내 안에 복음의 큰 틀이 잡혔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전도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복음을 정리해서 초심자에게 말할 자신이 없었다. 이제는 교재와 양육자님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와 책, 암송 구절을 통해 복음의 틀을 세우게 되었다.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이 끝나자마자 20년 지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셋째, 경건 훈련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처음으로 말씀 암송을 제대로 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듯 내 안에 새 자아를 창조하는 경험을 했다. 옛 자아와 야망, 정죄하고 비교하는 마음, 자책감, 열등감이 사라졌다. 암송 구절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방법도 터득했다.

넷째,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되었다.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하느라 분주했다. 이제는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 정말 중요한 것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었다. 인생이 훨씬 단순하고 명쾌해졌다.

전도를 삶으로 실천하는 양육자님을 보면서 나도 전도의 기쁨을 알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 양육자님의 묵상과 경건 생활을 보며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 매일 옛 자아를 죽이고,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참된 기쁨임을 양육자님을 보고 배웠다. 희생의 가치를 모르던 내가 양육자님처럼 남을 양육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 거듭난 사람답게 살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과 양육자님께 감사드리다.

■ 와이미션 수료 간증



/ 이현원 집사(동대문중앙광동체)

깨달음, 회개, 다짐

와이미션 과정을 듣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하지?”라는 부담감이 있었다. 그러나 강의를 들을수록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동쪽 끝에 자리 잡은 작은 나라를 지켜보시고,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다. 선교사들의 순교를 통해 이 땅의 문을 여시고, 일제 식민 통치와 6.25 전쟁을 통해 인내를 가르치시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함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다. 이 내용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 것일까?’라고 수없이 질문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었다.

많은 선교사의 피 값과 헌신과 순종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많은 열매가 됐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나도 가까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열방과 타민족에게도 되돌려 줘야 한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물질을 흘

려보냄으로 열심히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지금 우리나라에 유입된 많은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러다가 우리 땅을 외국인들에게 내주지는 않을까?’, ‘우리가 지켜온 단일민족이 다민족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다. 이러한 염려와 생각이 고착된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생각을 회개하고 내려놓게 되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단번에 씻어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겠다. 아무런 값없이 받은 사랑을 그동안 왜 나에게만 적용하고 살았을까?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해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Joseph, Shiny 선교사(파키스탄)

“저희와 동역해주십시오”

최근 이곳도 오미크론이 확산되어 현지인들이 많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한국인들과 선교사님 중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몇 주 전에는 아내와 제가 밀접접촉자가 되어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이었습니니다. 모든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현재의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힘내시기를 기도합니다.

2주 동안 이어진 온라인 단기선교를 잘 마쳤습니다. 짧은 기간 온라인으로 만났는데도 파키스탄과 한국 학생들이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단기선교 참가자들은 이슬람과 파키스탄의 문화와 선교역사, 현재 캠퍼스 사역, 다양한 전문인 사역, 미전도종족 사역에 대한 강의를 듣고 간단한 우르두어를 배웠습니다. 온라인 친구 초청 전도집회를 열고 한국 학생들이 준비한 드라마, 태권도, 댄스 영상을 보여주며 우르두어로 현지인들에게 사영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15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한국어를 배우는 소그룹

이 결성되었습니다. 순예배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 새로운 현지인 친구들은 현지인 순장과 연결되어 제자의 삶을 살도록 훈련받고 있습니다.

학생 25명이 매주 토요일 센터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순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는 2시간 정도 태권도를 배웁니다. 태권도장이 따로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태권도를 가르치고,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새로운 현지 친구들이 오고 있습니다. 태권도장이 하루속히 마련되어 매일 태권도를 가르치고, 성경공부와 전도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5월에는 태권도장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고 사업자 등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2월 7일부터 격주 월요일에 선교지를 위한 온라인 기도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며,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온누리 전도학교 수료 간증



/ 박은진 집사(동대문중앙광동체)

한 영혼, 한 사람

온누리 전도학교에서 그동안 내가 전도하지 못했던 이유를 깨달았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온누리 전도학교 강의를 듣고 실습하는 내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음의 무기를 준비시켜 주셨다. ‘111전도운동’(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유입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운동) 실천이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다. 나의 무능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해준 전도대 상자는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후배다.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계속 시간이 어긋나 걱정했는데 퇴근 전에 15분 만났다. 후배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거야?”라고 했더니 후배가 반대 질문을 많이 할 거라고 했다. 후배의 대답에 당황하지 않고 너무 반갑게 “그래. 나도 반대 질문 많이 연습해야 해”라고 답했다. 담대하고 뻔뻔한(?) 내 모습이 놀라웠다. 나를 당황하게

만든 것은 후배였다. 후배가 생각보다 너무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 후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꼭 복음을 들어야 했던 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15분을 허락하셨고, 그가 복음을 듣게 하셨다.

내가 근무하는 부서는 죄인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동료들이 늘고 있다. 죄인1, 죄인2, 죄인3... 별명을 붙여 부르고 있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나도 그들과 함께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삶이 되어가고 있다. 버스정류장에서, 택시 안에서 5분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연약한 나를 통로 삼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복음의 무기를 준비한 자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리라 오늘도 다짐한다.

장로칼럼

일상을 바꾸는 크리스천

안태환 장로
(양지온누리교회)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한국 교회가 사회에 부끄러운 모습을 참 많이 보았다. 교회가 세상과 같은 수준으로 싸움을 했다. 이겨도 손해 보는 싸움이였다. 모이지 못하면 헤어지면 되는데 어떻게든 모이려고 못난 모습을 자주 보였다. 한국 교회가 정부의 방역지침에 억울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대응이 참 아쉬웠다고 평가하고 싶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한국 교회가 이상한 사람들만 다니는 종교로 비치고 있다. 또 세상과 같은 수준으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젊었을 때 세상에 불합리한 모습이 너무 많이 눈에 띄어서 하나님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내가 너보다 알면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런 나도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왜 난리냐?”

정말 참피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쉽지만은 않겠지만 예배자로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 나갔으면 좋겠다. 예배자로 바로 서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다고 너무 힘을 주면 부작용이 있다. 나는 늦은 나이에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신앙을 가지기 시작한 30여 년 전에는 전도하면 성도들이 교회 이름이 적힌 띠부터 돌려매고 거리로 나갔다. 지금이야 어떤 의도인지 알지만 당시에는 그런 전도문화가 잘 이해가 안 됐다. 어떻게 전도를 한다, 안 한대로 나누는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삶에서 흘려보내면 내 삶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는 전도자가 자연히 되는 거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쉽지 않았다. 신앙생활 하다 은혜받고 이제는 뭐 좀 해보아겠다며 힘껏 힘을 주면서 살면 삶이 아니라 이벤트가 됐다. 이벤트가 되면 뜻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리고 뭐가 좀 되면 ‘내가 했다’는 자의식만 높아졌다.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질 때도 있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 교회에서 온누리교회만큼 양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가 드물 것이다. 환경이 좋으니 성도님들도 성경공부를 참 열심히 하신다. 그런데 아는 만큼 실천하고 있지는 돌아보면 벌써 나부터 부끄러워진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좀처럼 실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올해 온누리교회 표어가 부담스러우면서도 반갑다. 올 한 해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싶다.

온누리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신앙생활 일환으로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 3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 동안 일상에서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실천을 하는 캠페인이라고 한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날’이 시작되면서 양지온누리교회는 개인 텀블러를 이용하기,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했었다. 처음에는 교회 카페에 개인 텀블러를 비치하거나 텀블러를 들고 다녔는데 어느새 원상복구 됐다. 그래도 성도님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환경을 지키는 습관이 생겼다. 이번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서 생명과 환경을 위해 일상을 바꾸는 나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권사칼럼

어둠 가운데서도 내가 웃을 수 있는 이유

조은미 권사
(강동온누리교회)

코로나19의 횡포가 갈수록 포악해지려는가 싶더니 근자(近者)에 와서는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바꿔 무차별 강타를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그리 기세를 부려도 나와 멀다고 생각했던 안일함이 가까운 지인들의 확진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들으며 절박함으로 바뀌었다. 이제 그 과물이 내 코앞에서도 으르렁거리고 있음을 느낀다.

부득불 꼭 나가야 하는 외출 외에는 삼가고, 개인위생에 더 신경 쓰며,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섭생에 주의하고, 각자도생하는 길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다.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상황에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하루속히 이 재앙이 지나가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다.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온 국민이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어느새 굳어진 양당 구조 속에 편을 가르며 서로 이를 드러내고 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싸움닭이 되어 ‘무조건 내 편만 옳다’는 몰이성에 함몰되어간다. 나와 다른 의견이면 적이 된다. 친하던 사이에도 진영이 갈리면 서로 경원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다. 그야말로 아사리판이다.

공정과 세계 평화를 표방하는 동계 올림픽에서도 한쪽에 치우친 편과 편정으로 우리를 분노케 했다. 어디를 돌아봐도 우울하고, 웃음이 없고, 평안이 없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이 나라, 아니 세계 온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 하늘의 밝은 빛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할 뿐이다.

나는 요즘 인터넷으로 설교 말씀이나 찬양을 듣는다. 좋은 시를 외우면서 밖에서 오는 부정적인 자극을 내 안에서 완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긍정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늘 감사거리를 찾으며 시들어가는 내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있다. 따뜻하고 행복했던 추억 속에 머물며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던 순간들을 떠올린다. 그러면 어느새 마음이 따스하고 축축해지면서 행복이 스멀스멀 기어든다. 거울을 보고 미소 지어 보며 스스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보낸다. 내 모습 이대로 자족하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친다.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랑과 신뢰의 대상을 소유하고 있기에 어떤 상황에도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다. 내 속에 가득 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 애쓴다. 세상이 어둡고 캄캄해도 내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드린다.

오,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피할 산성이시고 등불임을 고백합니다. 이 위기와 혼란 가운데 당신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고난의 뜻을 깨닫고 당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소서.

더 이상 당신을 대적하는 무모한 악을 쌓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돌아보시고 공정과 질서와 사랑과 평강이 회복되게 하소서.

속히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가 시들지 않게 하소서.

신앙에세이

이호준 전도사
(서빙고 차세대)

작고 귀여운 아이들이 나를 “전도사님, 전도사님”하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좋은 교사란 무엇일까?’ 하고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 질문은 평소에 품고 있던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꿈과 만나 하나의 생각을 낳았다.

지금까지 만났던 어른들을 떠올려보면 참 다양하고 많다.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응대했던 어른들, 버스와 지하철에서 스쳐 간 어른들, 내게 길을 물었던 어른들, 경비업무를 보는 어른들, 부모님과 친척 어른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등 셀 수 없이 많은 어른을 만났다. 그 관찰과 만남의 축적과 함께 나도 어른이 되어 간다.

그 수많은 어른 중에서 내게 영향을 주고 여전히 추억하는 어른은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이다. 그분들은 모두 내게 ‘가르침’을 준 어른들이다. 교사(教師)였다. 어떤 교사는 잘나의 순간으로 나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꿔 놓고, 어떤 교사는 몇 년을 함께 지냈음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10년 전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했을 때였다. 어느 날 아버지와 딸이 매장에 왔다. 나는 여느 때처럼 틀에 박힌 멘트로 둘을 안내했고 음식을 가져다줬다. 그런데 그 아버지 반응이 다른 손님들과 달랐다. 특별했다. 그분은 친절하지만 영혼 없는 나의 안내 멘트를 생기 있는 눈빛과 미소로 경청하셨다. 적절한 순간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모습에서 품위와 친절함이 묻어났다. 나는 그때 느낀 그분의 권위를 기꺼이 존중하고 싶었고, 그 마음을 서비스(섬김)에 꼭꼭 눌러 담았다. 그분을 통해 나는 타인의 친절에(비록 그것이 영혼 없는 친절일

지라도)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었다. 그분은 겨우 3분도 채 안 되는 시간으로 나의 10년의 태도를 바꾸어 놓았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한 청년이 당신에게서 중요한 가치를 배우고 살아내고자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은 상상이나 할까? 나는 그분의 성함을 모른다. 하지만 그분의 표정, 그때의 배움은 생생히 추억한다.

아이들은 나를 어른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나의 말과 행동, 표정을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배울 것이다. 부디 내가 아이들에게 반면교사(反面敎師)는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이들은 어른이 될 때까지 수많은 교사, 가르침을 주는 어른들을 만난다. 내가 그동안 만났던 교사 중에서 이름을 기억하는 교사는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분들의 표정은 거의 다 기억하고 있다. 화가 나 있거나 무관심한 표정의 어른들도 기억한다. 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추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

게 정말 따뜻한 표정으로 기억되는 교사들이 있다. 그분들의 표정은 추억할 때마다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나의 마음을 위로한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고뇌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예수님께서 늘 모든 이들에게 웃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정에 웃음은 너무 당연해 제자들이 그 특별함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웃음이 배경으로 깔려 있어서 예수님의 표정이 의분, 눈물, 고뇌로 일그러지는 순간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제자들이 인생을 바쳐 선교하며 온갖 고난을 겪을 때, 그들도 예수님의 표정을 추억하지 않았을까? 너무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표정이어서 ‘내가 어느 길을 가도 나는 너를 긍정하는 웃음을 잃지 않을 거란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자들은 그 위대하고 명예로운 성도의 인생을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

이름보다 표정으로 추억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참된 경건

좋은 발은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영역은 길가와 같고, 어떤 영역은 돌밭과 같고, 어떤 영역은 좋은 밭 같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좋은 밭으로 자라다가 어느 시기를 지나면서 가시덤불과 길가로 변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다양한 밭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밭을 끊임없이 기경하고, 말씀이 내 안에 올바르게 임재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반드시 통과하는 것이 우리의 전인격입니다.

전인격을 통해 삶으로 나타나는 '말씀'

말씀이 전인격을 통해서 삶으로 나타나는데 전인격의 반응,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체 기관을 예로 듭니다. 첫째, 귀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경청을 강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19절).

‘듣기를 빨리 하라’는 것은 귀가 얇아서 누가 뭐라 하면 여기저기 휩쓸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가감 없이, 제한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경청을 의미합니다. 귀가 분명 무엇인가 듣는데 영적인 귀가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빨리 듣는 것은 속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경청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입은 말씀에 반응하는 언어를 강조합니다.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26절).

말하기를 천천히 하라는 것은 말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뜻이 아닙니다. 혀를 제어하라는 뜻입니다. 합당한 말, 적합한 말, 때에 맞는 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 진실한 말, 왜곡되지 않는 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이 나가려고 할 때

내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 그 말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디게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말로 바뀌어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혀를 제어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을 더디게 하라는 말은 단어를 적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언어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말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옮길 때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말을 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곡된 말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전할 때 자기 생각을 덧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은 깨닫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22~24절).

말씀을 영혼의 거울에 비유합니다. 말씀을 보고 깨닫는 사람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바로 고쳐야 하는데 무엇인가 가로막는 기운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잘되지 않습니다. 결국 마음으로 문제가 귀결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 버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21절).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보고 느끼는 것으로 마음이 변화될 것 같지만, 아무리 듣고 보고 깨달아도 마음에 있는 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길가와 같이, 돌밭과 같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오감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정반대의 결과를 내리는 이유입니다. 마음에 악과 더러운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오감이 다르게 작동합니다. 마음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끌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못 박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마음에 있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는 유일한 통로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못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미 심어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겸손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온유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이미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우리가 성장합니다. 삶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환란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란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환란과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며, 우리에게 지혜와 은사를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들의 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심겨진 말씀이 자라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이들을 돕고, 자신을 지켜 가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교회의 사회적 책임

‘서울역희망공동체’의 섬김 그리고 소망



김광훈 장로
(사회선교부
서울역희망공동체)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8). 서울역희망공동체는 온누리복지재단이 2018년 2월부터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를 도와 서울역 인근 동자동(용산구) 쪽방 주민들의 자활과 자립,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60여 명의 봉사자가 2인 1조로 쪽방 주민 중에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20여 명의 집을 월 2회 방문하고 있다. 말벗이 되기도 하고, 쪽방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을 파악해서 쪽방상담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열악한 쪽방에 세탁기가 있을 리 없다. 세탁물을 수거해서 빨래터에 가져다주고 세탁한 다음 배달해주기도 한다. 외출할 때 도우미 역할도

하고, 반찬을 지원하기도 한다.

우리가 섬기는 쪽방 주민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분들이다. 그분들이 우리가 온다고 하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시장까지 가서 음료수를 사놓고 기다리신다. 방문을 마치고 떠나는 봉사자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는 길에 커피라도 한잔하라며 용돈(?)을 주시려는 분도 있다. 한 달에 두 번 잠시 뵙고 이야기 들어줄 뿐인데 그분들은 우리를 손꼽아 기다리신다. 그분들을 보면서 봉사자들은 이웃을 섬길 기회가 있음을 감사한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쪽방 주민을 섬기는 허정우 성도의 간증이 인상깊다.

“몇 번이나 방문했는데도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아서 만날 때마다 어색하고 멧찌가까지 했는데 꾸준한 방문에 드디어 대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비 오는 날 건설 현장에서 미끄러져 목과 척추를 다치는 바람에 15년을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가 기적적으로 걷게 되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퍼서 함께 울었습니다. 대상자를 섬기며

저의 나약함을 회개했고, 외로운 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쪽방촌 주민들의 이불을 세탁해주는 빨래터를 섬기는 배기선 집사의 간증도 잊지 못한다.

“쪽방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분들이 서울역희망공동체 봉사자들을 기다리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대상자가 아닌 주민들이 ‘나도 찾아와 달라’고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몽클해졌습니다. 쪽방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봉사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서로 기다리는 사이로 발전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전염이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쪽방촌 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가 외로움인데 말벗이 되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역희망공동체 봉사자들은 월 2회(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동자동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제철 과일, 반찬, 라면, 기타 생필품을 챙겨 쪽방촌 주민들의 집을 방문한

다. 챙겨간 물품을 드리고 말벗이 되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눈다.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도 하고, 설과 추석, 크리스마스에는 특별한 선물을 드린다. 한여름에는 수박 화채를 만들어 나누기도 한다.

서울역희망공동체와 함께 할 성도들이 많으면 좋겠다.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봉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의욕 관리를 위해서 봄과 가을 두 차례 봉사자 수련회와 문화산책(영화감상, 전시회 관람 등)을 한다. 연말에는 ‘감사의 밤’을 개최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새해 결의를 다진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봉사가 멈춘 상태다. 쪽방 주민들은 일반인보다 위생이나 감염에 취약해서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자유롭게 되어 서울역희망공동체 봉사가 재개되었으면 좋겠다. 외롭게 지내는 쪽방 주민들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문의: 02-3215-3434, 3436

소천

2/18(금) 양재 박강주 안수집사 모친상 고 이필연

2/18(금) 동대문중앙 박종선 성도 부친상 고 박인규

2/19(토) Point5 김혜민 성도 모친상 고 김명희

2/20(주일) 강남E 강문환 성도 모친상 고 박악근

2/21(월) 양천 김은정 성도 부친상 고 김부겸

2/23(수) 서초B 김애련 권사 모친상 고 김정실

2/22(목) 광명 유혜진 성도 부친상 고 유안준

온누리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는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센터 후원품 모집
 내용: 시설 이용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안마의자 후원 요청
 문의: 유호연 실장(031-399-799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마을수호봉사단 모집
 내용: 프로그램 보조, 홍보 컨텐트 제작, 방역 활동 등 자원 봉사자 모집
 문의: 강유림 사회복지사(02-3474-6080)

서초50플러스센터 사.이.다 공모전 개최
 내용: 사소하지만 이득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15분 영상으로 제출
 문의: 선조원PM(070-4304-6913)

서초구립노티나무터 재능나눔 강의봉사단 모집
 내용: 전문지식을 가진 은퇴 신중년(50세이상)의 재능 나눔 강의 봉사 진행
 분야: 인문/교양/독서/글쓰기, 법률/경제, 문화/예술 등
 문의: 김유진 사회복지사(02-6863-7134)

양산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자원봉사자 및 후원품 모집
 내용: 발달장애인 점심 배식 지원, 손소독제 및 비접촉체온계 등 방역용품 후원
 문의: 신경자 행정담당(02-6951-0329)

재 정

실업조현금: 하나는행 573-810034-10105
주일현금: 하나는행 573-910018-28205
감사현금: 하나는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현금: 하나는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는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는행 573-910009-99004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념,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A(학술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등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광고

서빙고 한마음공동체 피아노반주자 모집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오후 1:00
 대상: 코드 반주가 가능하며 예배팀 경험이 있는 분
 문의: 김재혁(010-3353-9150)

두란노어머니학교 119기 지원자 모집
 일시: 3월 7일~4월 4일 매주 월 오전 10시
 모임: Zoom
 회비: 10만 원(사모, 선교사, 목회자 50% 할인)
 신청: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
 문의: 02-2182-9110

비전통독 10기 참가자 모집
 일시: 3월 3일~6월 16일 매주 목 오전 10시
 회비: 무료
 신청: 아이스쿨 홈페이지
 문의: 010-9041-5538

아름다운동행 자원자반, 훈련자반 모집
 자원자반 일시: 3월 12일~4월 30일 매주 토 오후 3시
 회비: 가정당 5만 원(교재비 포함)
 코치반 일시: 3월 12일~3월 19일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회비: 가정당 3만 원(교재비 포함)
 신청: 아이스쿨 홈페이지
 문의: 010-9041-5538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안윤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안윤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안윤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안윤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크리스천 필수 앱 '퐁당'

퐁당 오리지널 콘텐츠부터 말씀, 퀴즈, 영화까지
스마트TV와 PC의 큰 화면에서도 은혜를 플레이해보세요!

'퐁당' 시청방법

- | | |
|-------------|------------------------------|
|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기 |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퐁당' 검색 후 다운로드 |
| 스마트TV로 시청하기 | LG, 삼성 스토어에서 '퐁당' 검색 후 설치 |
| PC로 시청하기 | www.fondant.kr |

*퐁당 런칭 1주년을 맞아 PC 또는 스마트TV로 퐁당 오리지널 영화 <더 워크> 시청하고 인증을 남겨주시면 풍성한 선물을 드립니다.

- | | |
|-------------|---------------------|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fondant' 검색 |
| 기간 | 2월 15일(화)~3월 11일(금) |
| 발표 | 3월 18일(금) |



이벤트참가



'퐁당' 1년의 기록

퐁당의 1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신앙 성장을 돕는 양질의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2022.01.31.기준)

가입자 80,415명	전체 다운로드 111,981건	네트워크 교회 230개	매일 업로드 콘텐츠 60개
-----------------------------------	--	------------------------------------	--------------------------------------